

'현우경' 이야기 (16)

가난한 여인의 등공양

중생 제도 발원한 등불 절대 끌 수 없어

슈라바스티에 난타라는 여자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매우 가난해 매일 같이 구걸을 다니면서 끼니를 해결했다. 어느 날 난타는 왕을 비롯해 신하와 모든 백성들이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 올리는 모습을 보게 됐다. 난타는 생각했다.

'부처님이 계시는 훌륭한 곳에 살면서 나는 왜 거지로 살아가야 하는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단 말인가.'

난타도 다른 사람들처럼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기 위해 원을 세웠다. 그녀는 해가 뜨고 저물 동안 쉬지 않고 구걸을 해 한냥의 돈을 얻었다. 난타는 그 돈을 가지고 기름집으로 가 기름을 샀다. 난타가 너무 적은 양의 기름을 사니 주인이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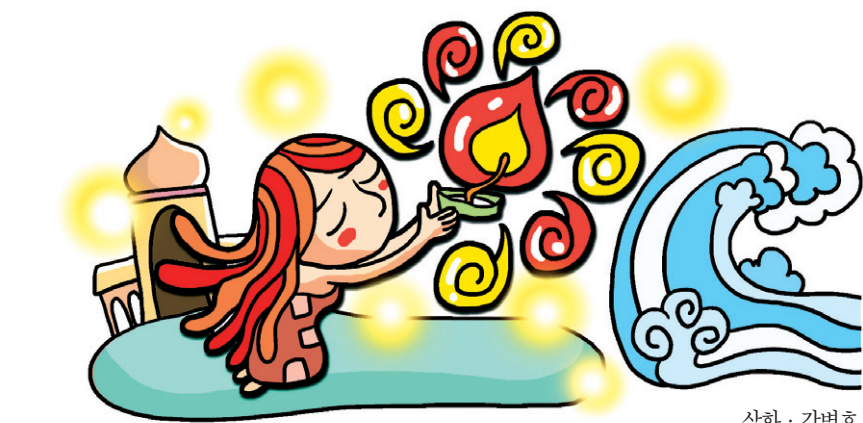
"이렇게 작은 양의 기름을 사서 어디에 쓰려 하는가?"

"부처님께 등불을 공양으로 올리기 위해 기름을 사는 것입니다."

기름집 주인은 난타의 정성어린 모습에 감동해 기름의 양을 배나 많이 줬다. 난타는 기름을 받고 매우 기뻐하며 기름집 주인에게 거듭 감사의 인사를 표했다. 난타는 그 길로 곧장 등불을 만들어 절로 향했다. 이미 절에는 사람들이 올린 수많은 등불들이 걸려있었다. 난타는 그 한가운데에 자신의 등불을 걸고 서원했다.

"저는 지금 가진 것이 없어 이 작은 등불만 부처님께 공양을 올립니다. 앞으로 제가 지혜를 얻어 중생의 어둠을 없앨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난타는 서원을 마치고 절을 떠났다. 밤이 되자 수많은 등불들은 아름다운 빛을 냈다. 하지만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등불들은 하나 둘씩 꺼져갔다. 그때 절을 순찰하던 마우드갈야야나가 불이 꺼지지 않는 등불 하나를 발견했다.



삽화 · 강병호

"이 등불은 왜 아직도 꺼져 있는 것인가."

마우드갈야야나는 등불을 끄기 위해 입으로 불꽃을 '후' 하고 불었다. 하지만 불꽃은 마우드갈야야나가 불이 꺼지지 않는 등불 하나를 발견했다.

흔들림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 모습을 지켜본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지금 너는 그 등불을 절대 끌 수 없다. 네가 바다의 모든 물을 다 쏟아 붓는다 하여도 그 불꽃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 "어째서 이 불은 꺼지지 않는 것이 읊니

까."

"왜냐면 일체중생을 다 건지기 위한 사람이 보시한 등불이기 때문이다."

다음날, 난타는 절을 찾아와 부처님께 예배를 올렸다. 때마다 부처님은 난타의 등불을 바라보고 있었다.

"너는 앞으로 먼 훗날 부처가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난타는 매우 기뻐하며 그 자리에서 부처님께 출가하기를 간청했다. 부처님은 난타의 출가를 허락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마우드갈야야나는 거지가 비구니가 되는 것을 보고 놀라 부처님께 물었다.

"저 여인은 무슨 인연으로 출가해 비구니가 된 것입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먼 옛날 카사파라는 부처님이 살고 계셨다. 그 나라에는 한 부자가 살았는데 그의 부인은 부처님과 스님들을 초청해 공양을 올리곤 했다. 하지만 카사파 부처님은 부

자 부인의 공양을 받기 전에 가난한 여자의 공양을 먼저 허락했다. 그 모습을 본 부자의 부인은 가난한 여자보다 자신이 못한 대접을 받자 몹시 불쾌해 했다.

"어째서 부처님은 나보다 거지의 공양을 먼저 받으신단 말인가. 내가 훨씬 더 좋은 음식과 옷을 공양할 터인데."

결국 부인은 부처님을 찾아가 자신의 초청을 거절한 것에 불만을 토로했다. 이로 인해 부인은 훗날 계속 거지로 태어났다. 하지만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는 것을 항상 기쁘게 생각해 결국 비구니가 됐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게 된 슈라바스티의 왕과 백성들은 등불을 보시한 여자의 이야기에 감동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등불을 준비해 부처님께 공양으로 올렸다. 이 때문에 슈라바스티는 항상 밝아늘에 은하수가 수놓아진 것처럼 환하게 빛났다.

구성=이은정 기자 soe84@hyunbul.com

대장경 속 우화 18 - 옷에 음식을 먹이다 - 구성·김홍인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텍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에너지 전문 컨설턴트 무료상담. 사찰, 포교당,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윤달 삼사순례 무료점심공양. 전국에서 불심이 가장 돈독한 부산의 관음제일기도도량 칠보사가 전국의 대덕 큰스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칠보사는 천마산 중턱의 조선시대 관세음보살을 모시고 있는 해맞이 기도도량입니다.

'적하수오' 묘목 분양. 우리 몸 최고의 보약인 적하수오 묘목을 분양합니다. 스님들께서는 사찰을 운영하시면서 적하수오 재배시 최고의 소득작물로 수익을 거두실 수 있으며, 또한 불자들에게서도 재배하실 수 있는 부지만 있다면 가능합니다.